

2019-1학기 iClass 수강 수기

학생 정보	학과	국어교육과	학번	
	성명	이아현	전화번호	
과목 정보	수강시기	2016년 2학기	수강과목	교육심리
	담당교수	최지은 교수님	주요내용	iclass의 장점
제목		힘들지만 유익해		

1학년 2학기때 2학년의 교직과목인 교육심리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2,3학년이었고 교육학 강의나, 교육학개론 같은 교직과목의 선수과목을 이미 수강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지적능력에 비해 수업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고,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iclass를 통해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고 좋은 성적도 거두었기에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수강 후기에서 오프라인 과목과의 차별성, 저만의 학습전략, iclass 교과목 수강을 통해 공부한 결과, 새롭게 깨닫게 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과목과의 차별성입니다. 오프라인 과목은 교직과목의 경우 일주일에 2시간, 1회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과 연관되지 않고 매 학기 학생들이 다른 내용을 접해야 한다는 것이 교직수업의 특성입니다. 이런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하셔야 할 내용은 많고 학생들은 매번 새로운 지식을 접하다보니 많은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iclass는 이러한 인지적 부담을 낮추어 줍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교수님이 크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work sheet와 exercise sheet를 작성하다 보니 수업시간에 할 내용에 대해 대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학생들은 더욱 심화되고 자세한 내용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class 수업의 학습전략과, iclass 교과목 수강을 통해 공부한 결과를 함께 말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1학년 때 2학년 과목을 들었기에 다른 수강생들보다 배경 지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업만으로는 다른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 iclass 과목을 선택하였고, iclass의 동영상 강의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iclass 수업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주차에 있는 강의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듣는 것입니다. 저는 iclass의 수업이 가진 의미가 수업 전에 듣고 학생들이 수업에 와서 과제물에 대해 모둠원과 토론하고, 서로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며 교수님께 심화된 내용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업 전에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수업에 임해야 위와 활동이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class 동영상 강의의 활용입니다. 저는 매 수업 전에 약 1시간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크고 굵직한 내용을 위주로 파란색으로 필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해당 동영상 강의의 과제물들을 풀고 모르는 내용들은 따로 전공교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듣고 거시적으로 필기한 노트를 수업시간에 가지고 들어가서 상세한 설명들을 검정색으로 필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니 노트를 통해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 교육심리의 이론의 출현이유,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업 동영상 강의와 수업이 따로 놀지 않고 연결시킨 것이 제가 iclass 활용을 전략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들을 통해 2학년 과목에서 1학년이 a+를 받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교과목들은 강의를 듣고 끝나다 보니 단기적으로 기억되었다가 한 학기가 끝나면 대부분의 지식들이 휘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iclass를 이용한 수업의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예습, 복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더 많은 지식들이 장기기억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심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후배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깨닫게 된 점입니다. iclass 수업을 들은 후에 생각해 보니 학교에 낸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1회 2시간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 1시간,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 등 실제로 1주일에 3~4시간 정도 수업을 받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과제물을 학생이 작성한 후 제출로 끝나기만 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제물을 피드백을 통해 문제의 요지를 잘못 파악한 점, 답안에 더 보충했으면 좋았을 점과 같이 아쉬운 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에만 피드백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제물의 답안에서 적절한 접속사의 사용, 구성 등과 같이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4학년이 된 지금 교육학 논술 답안 연습을 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iclass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느낀 점은 힘들지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iclass를 들으며 수업 전에 동영상을 보고 과제물을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성실하게 강의를 듣고 가는 점도 힘들었고, 제대로 된 수업도 듣지 않은 채로 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도 떨어졌었습니다. 성실하게 수업을 듣다보니 2학년 과목에서 1학년이 A+을 받아 자신감도 생겼고, 1,2년이 지나 동기나 후배들이 교육심리 과목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을 보고 힘들었지만 유익한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에 그 이후 2개의 iclass 수업을 수강했으며 동기와 후배들에게도 많은 추천을 했고 다들 힘들었지만 유익하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나중에 교사가 되어 꼭 활용해 보고 싶은 수업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생실습을 통해 교사의 강의식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기에 효율적인 수업이라는 점에는 틀림없으나 학생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업 태도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운 수업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iclass로 수업을 구성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 전에 수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본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둠학습과 같은 활동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더욱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처럼 iclass 수업은 고되지만 지식이 쌓이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성실성, 문제해결력 등 대학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수업입니다. 다만 iclass 수업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설되는 강의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동기, 후배들에게 들어보라며 많은 추천을 했지만 시간표에 넣을 수 있는 수업이 iclass가 안된다는 것, 이번 학기에는 iclass 강의를 안열린다는 이유 등으로 iclass 수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능동적인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iclass 수업이 더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